

## 『黃帝內經』中‘附’字 意味 研究

원광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sup>1</sup> ·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원전학교실<sup>2</sup> · 한국전통의학연구소<sup>3</sup>  
심현아<sup>1, 2</sup> · 송지청<sup>2</sup> · 금경수<sup>2, 3</sup> · 엄동명<sup>2, 3\*</sup>

### A Review on Meaning of 'Fu(附)' Character in *Huangdineijing*(黃帝內經)

Song Hyun-a<sup>1, 2</sup> · Song Ji-chung<sup>2</sup> · Keum Kyung-soo<sup>2, 3</sup> · Eom Dong-myung<sup>2, 3\*</sup>

<sup>1</sup>Professional Graduate School of Oriental Medicine, Wonkwang University.

<sup>2</sup>Dept. of Classics,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Wonkwang University.

<sup>3</sup>Research Center of Traditional Korean Medicine.

**Objective** : Each terminology has twofold meaning. Chinese character has several meanings because it is phonogram. Even if exactly same in shapes but the meaning is different. We should be more careful about meaning of the character Fu(附) in *Huangdineijing*.

**Method** : We try to find out the meaning of fu excluding meaning of fu(附), edema(附腫) in *Huangdineijing*.

**Result** : Fu means fermented food, edema, sticking, skin, top side of the foot and so on.

**Conclusion** : Someone who have concern traditional medical classics have to give attentions that characters in classics could get different meanings in same character.

**Key words** : fu(附), fuzhong(浮腫), character, phonogram, *Huangdineijing*.

## I. 序 論

言語마다 각 用語가 二重의 意味를 나타내는 경우가 있다. 漢字와 같이 表意文字인 경우는 形態는 同一하면서도 다른 意味를 갖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더욱 주의해야 한다.

用語의 二重의 意味에 대한 기존 研究로는 엄동명의 『素問』「腹中論」石之則狂에 대한 새로운 해석<sup>1)</sup>과 ‘胸에 관한 考察’<sup>2)</sup> 그리고 심현아의 『黃帝內經』中“死”字意味研究<sup>3)</sup>가 方法論上 類似性이 있기

\* 교신저자 : 엄동명. 전북 익산시 신용동 344-2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원전학교실.

E-mail : haksan@wku.ac.kr

Tel : 063-850-6941 Fax: 063-842-4328

접수일(2012년 10월 22일), 수정일(2012년 11월 7일),

게재확정일(2012년 11월 16일).

1) 엄동명. 『素問』「腹中論」石之則狂에 대한 새로운 해석. 세 명대학교 한의학연구소. 한의학연구소 논문집 3. 2001.

2) 엄동명 외 3인. 胸에 관한 考察.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2011. 24(4).

3) 심현아 외 3인. 『黃帝內經』中“死”字意味研究.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2012. 25(3).

는 하지만 아직까지 『黃帝內經』에 나오는 ‘跗’字에 대한 연구는 없다.

『黃帝內經』에는 ‘跗’字가 31회 나오는데, 모두 한 가지 의미로만 사용되지는 않았다. ‘跗’字는 ‘浮, 跗, 膚’ 등의 여러 의미로 사용되기 때문에 『黃帝內經』을 이해하는데 많은 誤謬를 낳는다.

따라서 문장 가운데 어떻게 사용되었는지에 따라 ‘跗’字의 意味를 區別해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그 용례에 따라 『黃帝內經』에 나오는 ‘跗’字 意味의 多樣性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연구방법으로는 우선 한자사전과 내경사전류를 통해 ‘跗’字의 쓰임새를 살펴보고, 다음으로 『黃帝內經』에 나오는 문장 가운데 ‘跗’字의 용례를 의미별로 구분하여 조사해 보았다. 『內經』 문장의 의미와 같은 역대 내경 주석가의 견해와 『白話解』를 참고하여 ‘跗’字 意味의 多樣性을 검토하였다.

## II. 本 論

### 1. ‘跗’字에 대한 사전적 의미

#### 1-1. 『漢韓大辭典』

『漢韓大辭典』에서는 ‘跗’字에 대하여 ①臟器의 총칭, 跗와 같다. ②썩다, 부패하다. ③삭히거나 발효시켜 만든 식품 ④피부, 膚와 같다 ⑤浮腫 등의 의미로 풀이하고 있다<sup>4)</sup>. 이 가운데 ④번에 해당하는 ‘膚’字와 같이 피부의 의미로 설명하고 있는 경우 예문으로 『黃帝內經素問』 「評熱病論」을 들었는데 이는 뒤에서 다시 다루고자 한다.

#### 1-2. 『黃帝內經辭典』

『黃帝內經辭典』에서는 ‘跗’字에 대하여 ①同‘跗’, 足背 ②同‘膚’ 如‘跗腫’ ③通‘腐’, 발효나 삭힌 음식 ④腐爛 ⑤通‘附’ 등으로 풀이하고 있다<sup>5)</sup>. 이 가운데 ①번에 해당하는 ‘跗’字와 같이 발등의 의미로 설명하고 있는 경우 예문으로 역시 『黃帝內經素問』 「評熱病論」을 들었는데 이 또한 뒤에서 다시 다루고자

한다.

#### 1-3. 『黃帝內經大辭典』

『黃帝內經大辭典』에서는 ‘跗’字에 대하여 ①通‘蚘’ ②足脊 ③通‘浮’, 水腫證. ④腐爛 등의 의미로 풀이하였으며, 단어로는 跗腫, 跗髓病 등을 설명하면서 跗髓病에 대하여는 ‘附髓病’인 脛骨髓의 病으로 풀이하였다<sup>6)</sup>. 이 가운데 ①번에 해당하는 ‘蚘’字와 같이 벌레의 의미로 설명하고 있는 경우 예문으로 『黃帝內經素問』 「異法方宜論」을 들었는데 이는 뒤에서 다시 다를 것이다. 또한 ②번에 해당하는 발등의 의미로 설명하고 있는 경우 예문으로 『黃帝內經靈樞』 「邪氣藏府病形」을 들었는데 이 또한 뒤에서 다시 다를 것이다.

#### 1-4. 『內經辭典』

『內經辭典』에서는 ‘跗’字에 대하여 ①通‘跗’, 脚背 ②通‘浮’ ③通‘腐’, 醃制하여 발효시켜 만든 후 비린 냄새가 나는 음식 ④通‘附’ ⑤病名, 浮腫. ⑥火熱邪氣로 인한 손상, 국부의 빨갱게 부어오르는 증상. ⑦跗髓病 등으로 풀이하였다<sup>7)</sup>. 이 가운데 ①번에 해당하는 ‘跗’字와 같이 발등의 의미로 설명하고 있는 경우 예문으로 『黃帝內經素問』 「評熱病論」을 들었는데 앞서 『黃帝內經辭典』과 같은 설명을 하고 있으며 뒤에서 다시 논의하고자 한다.

이상으로 ‘跗’字에 대한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았는데, 주로 발효한 음식, 발등, 피부, 浮腫 등의 의미로 요약할 수 있다. 특히 『黃帝內經素問』 「評熱病論」의 경우 사전에 따라 의미를 다르게 해석한 경우도 있는데, 실제 용례를 통해 ‘跗’字의 의미를 살펴 보도록 하자.

## 2. 『黃帝內經』에서 ‘跗’字에 대한 용례

### 2-1. 跗를 의미

4) 漢韓大辭典. 서울.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2007.

5) 郭霽春 主編. 黃帝內經辭典. 天津. 天津科學技術出版社. 1991. p.630.

6) 周海平, 申洪硯, 朱孝軒 主編. 黃帝內經大辭典.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2008. p.645.

7) 張登本, 武長春 主編. 內經辭典.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5. p.435.

## 1) 氣交變大論 第六十九

## 【原文】

歲水不及 濕乃大行 長氣反用 其化乃速  
暑雨數至 上應鎮星 民病腹滿 身重濡泄 寒  
瘍流水 腰股痛發 腦膈股膝不便 煩寃 足痿  
清厥 脚下痛 甚則跗腫 藏氣不政 腎氣不衡  
上應辰星 其穀秬<sup>8)</sup>

## 【考察】

‘跗’에 대하여 王冰<sup>9)</sup>, 張介賓<sup>10)</sup> 등은 浮腫으로 해석하였으며, 『白話解』<sup>11)</sup>에서는 ‘跗’로 설명하여 跗腫을 ‘跗腫’으로 설명하였다.

여기에서 ‘跗腫’을 발등이 붓는다고 해석할 것인지 그냥 붓는다고 해석할 것인지에 따라 ‘跗’에 대한 의미가 달라진다. 그런데 붓는다고 해석할 경우는 ‘腫’字로도 풀이할 수 있기 때문에 앞서 腦膈股膝不便 煩寃 足痿清厥 脚下痛 등의 내용에 이어 심해지면 나타나는 증상을 말하므로 여기에서 ‘跗’는 ‘발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2-2. 浮腫을 의미

## 1) 評熱病論 第三十三

## 【原文】

帝曰 有病腎風者 面跗癭然 壅害於言 可刺不<sup>12)</sup>

## 【考察】

‘跗’에 대하여 楊上善<sup>13)</sup>은 腐敗로 보았으며, 馬蒔<sup>14)</sup>, 張志聰<sup>15)</sup>, 『白話解』<sup>16)</sup>에서는 발등으로 풀이

8)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95. p.246.

9) 藏氣不能申其政令 故腎氣不能內致和平 衡 平也 辰星之應 當減其明 或遇鎮星臨屬宿者乃災. 王冰 編註. 新編黃帝內經素問. 서울. 大星文化社. 1994. p.452.

10) 跗腫 浮腫也. 張介賓. 張氏類經. 서울. 成輔社. 1982. p.852.

11) 甚至足背浮腫等濕邪偏盛的病證. 王洪圖 主編. 黃帝內經素問白話解.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04. p.450.

12)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95. p.123.

13) 跗 扶付反 義當腐也. 楊上善. 黃帝內經太素. 北京. 科學技術文獻出版社. 2000. p.915.

하였으며, 특이하게 高世栻<sup>17)</sup>은 跗를 皮裏內外로 해석하였다. 王冰<sup>18)</sup>은 ‘跗’字에 대한 설명은 하지 않았지만 癭然을 들어 腫起貌로 해석하였으며, 吳昆<sup>19)</sup>은 浮의 의미로, 張介賓<sup>20)</sup>은 浮腫으로 보았다.

여기에서는 뒤에 이어 나오는 壅害於言 문장을 바탕으로 ‘跗’는 ‘浮’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2) 水熱穴論 第六十一

## 【原文】

帝曰 腎何以能聚水而生病

岐伯曰 腎者胃之關也 關門不利 故聚水而從其類也 上下溢於皮膚 故爲跗腫 跗腫者 聚水而生病也

帝曰 諸水 皆生於腎乎

岐伯曰 腎者牝藏也 地氣上者 屬於腎而生水液也 故曰至陰 勇而勞甚 則腎汗出 腎汗出逢於風 內不得入於藏府 外不得越於皮膚 客於玄府 行於皮裏 傳爲跗腫 本之於腎 名曰風水 所謂玄府者 汗空也<sup>21)</sup>

## 【考察】

‘跗’에 대하여 楊上善<sup>22)</sup>, 馬蒔<sup>23)</sup>, 張介賓<sup>24)</sup>, 張志

14) 面者 首面也 跗者 足面也 面跗癭然而腫. 馬蒔. 黃帝內經素問問注證發微.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8. p.136.

15) 跗 足也 然腫貌 言面足 然而腫也 張志聰. 張志聰醫學全書. 黃帝內經素問問注.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283.

16) 有的腎風病人, 面部和癭足背部浮腫. 王洪圖 主編. 黃帝內經素問白話解.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04. p.288.

17) 皮里內外曰跗. 高士宗. 黃帝內經素問直解. 北京. 學苑出版社. 2002. p.229.

18) 癭然 腫起貌. 王冰 編註. 新編黃帝內經素問. 서울. 大星文化社. 1994. p.219.

19) 跗 腫也. 吳昆. 黃帝內經素問吳注. 北京. 學苑出版社. 2007. p.154.

20) 跗 浮腫也. 張介賓. 張氏類經. 서울. 成輔社. 1982. p.475.

21)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95. p.213.

22) 溢於皮膚 故爲跗腫 扶付反 與腐同義也 外不得泄腑之皮膚 聚水客於六腑之中 行于皮 傳爲跗腫. 楊上善. 黃帝內經太素. 北京. 科學技術文獻出版社. 2000. pp.290-291.

23) 由是上者爲肺 下者爲腎 肺腎俱溢 溢於皮膚 其跗必腫 外不得越于皮膚 風乃客于玄府之內 行于皮肉之中 傳爲跗腫之證. 馬蒔. 黃帝內經素問問注證發微.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聰<sup>25</sup>), 高世忒<sup>26</sup>)은 ‘附’를 ‘皮膚’ 또는 ‘肌膚’로 說明 하였으며, 吳昆<sup>27</sup>), 『白話解』<sup>28</sup>)에서는 浮腫으로 풀이 하였다. 앞문장 ‘行於皮裏’ 때문에 대부분 ‘附腫’을 ‘皮膚 또는 肌膚에 발생하는 浮腫’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뒷문장 ‘附腫者 聚水而生病也’를 근거로 한다면 그저 ‘浮腫’을 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여기에서는 뒤에 다시 ‘附腫’을 설명하는 내용을 덧붙여 놓은 것에 따라서 ‘浮腫’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3) 五常政大論 第七十

#### 【原文】

岐伯曰 少陽司天 火氣下臨 肺氣上從 白起金用 草木青 火見燔炳 革金且耗 大暑以行 咳嚏 鼽衄 鼻塞口瘍 寒熱附腫 風行于地 塵沙飛揚 心痛胃脘痛 厥逆不通 其主暴速……太陽司天 寒氣下臨 心氣上從 而火且明 丹起 金乃青 寒清時擊 勝則水冰 火氣高明 心熱煩 噤乾 善渴 鼽嚏 喜悲數欠 熱氣妄行 寒乃復 霜不時降 善忘 甚則心痛 土乃潤 水豐衍 寒客至 沈陰化 濕氣變物 水飲內積 中滿不食 皮癰肉苛 筋脈不利 甚則附腫 身後癰<sup>29</sup>

1998. p.377.

- 24) 肌膚浮腫曰附腫 脾主肌肉 足太陰也 寒水侮之 故反聚水而生病 汗出逢風則腠理閉 內已離于藏府 外不得泄于皮膚 故客于玄府而爲附腫. 張介賓, 張氏類經, 서울. 成輔社. 1982. p.730.
- 25) 腫 脹也 皮膚者 肺之合 水聚于下 則反 溢于上 故腫脹于皮膚之間. 張志聰, 張志聰醫學全書, 黃帝內經素問集注.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222.
- 26) 溢于皮膚 故爲附腫 附腫者 皮肌脹滿 水氣不行 外不得越于皮膚 致風水客于玄府 行于皮里 傳爲皮裏內外之附腫. 高士宗, 黃帝內經素問直解. 北京. 學苑出版社. 2002. p.395.
- 27) 浮腫曰附 行于皮膚 傳變而爲浮腫. 吳昆, 黃帝內經素問吳注. 北京. 學苑出版社. 2007. pp.246-247.
- 28) 水液排泄不暢 停留在體內四處泛濫 流溢到皮膚中就形成了浮腫 因此 所謂浮腫 就是水液停聚而產生的病變 又不能向外排泄 于是留滯在玄府中 在皮膚之中流動 而形成了浮腫 這種病的根源在腎臟 病名叫做風水. 王洪圖 主編, 黃帝內經素問白話解.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04. pp.357-358.
- 29)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95. p.256.

#### 【考察】

‘附’에 대하여 王冰<sup>30</sup>), 吳昆<sup>31</sup>), 『白話解』<sup>32</sup>)에서 ‘浮腫’으로 설명하였다. 그러나 발등으로 해석하는 것은 앞뒤로 의미가 맞지 않으니 ‘附’는 ‘浮’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4) 六元正紀大論 第七十一

#### 【原文】

少陽 太宮 厥陰 甲寅 甲申 其運陰雨 其化柔潤重澤 其變震驚飄驟 其病體重 附腫 痞飲……凡此太陰司天之政 氣化運行 後天陰專其政 陽氣退辟 大風時起 天氣下降 地氣上騰 原野昏霧 白埃四起 雲奔南極 寒雨數至 物成於差夏 民病寒濕腹滿 身臃憤 附腫 痞逆 寒厥拘急 濕寒合德 黃黑埃昏 流行氣交 上應鎮星辰星 其政肅 其令寂 其穀黔玄……三之氣 天政布 濕氣降 地氣騰 雨乃時降 寒乃隨之 感於寒濕 則民病身重 附腫 胸腹滿 四之氣 畏火臨 溽蒸化 地氣騰 天氣否隔 寒風曉暮 蒸熱相薄 草木凝煙 濕化不流 則白露陰布 以成秋令 民病腠理熱 血暴溢 瘡 心腹滿熱臃脹 甚則附腫……三之氣 天政布 風乃時擊 民病泣出 耳鳴掉眩 四之氣 溽暑濕熱相薄 爭於左之上 民病黃痺而爲附腫……故民病心腹脹 腸鳴而爲數後 甚則心痛脇脹 嘔吐霍亂 飲發注下 附腫身重 雲奔雨府 霞擁朝陽 山澤埃昏 其迺發也 以其四氣 雲橫天山 浮游生滅 佛之先兆……厥陰所至爲脇痛 嘔泄 少陰所至爲語笑 太陰所至爲重附腫 少陽所至爲暴注 暈瘧 暴死 陽明所至爲鼽嚏 太陽所至爲流泄禁止 病之常也 凡此十二變者 報德以德 報化以化 報政以政

- 30) 肺爲熱害 水且救之 水守肺中 故爲附腫 附腫 謂腫滿按之不起 太陰在泉 溼監於地 而爲是也. 王冰 編註, 新編黃帝內經素問. 서울. 大星文化社. 1994. pp.495-496.
- 31) 故令寒熱附腫 浮腫 皮着而斂謂之瘰 肉浮不實 謂之苛 身後腎之部也 肉厚主土 故令癰. 吳昆, 黃帝內經素問吳注. 北京. 學苑出版社. 2007. pp.310-311.
- 32) 所以人們多發生咳嗽 噴嚏 流涕 衄血 鼻塞不利 口瘡 寒熱往來 浮腫等病證. 王洪圖 主編, 黃帝內經素問白話解.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04. pp.482-483.

報令以令 氣高則高 氣下則下 氣後則後 氣前則前 氣中則中 氣外則外 位之常也 故風勝則動 熱勝則腫 燥勝則乾 寒勝則浮 濕勝則濡泄 甚則水閉**腑**腫 隨氣所在 以言其變耳<sup>33)</sup>

## 【考察】

‘腑’에 대하여 吳昆<sup>34)</sup>, 『白話解』<sup>35)</sup>에서는 모두 浮腫으로 설명하였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腑’는 ‘浮腫’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5) 至眞要大論 第七十四

## 【原文】

少陰司天 熱淫所勝 佛熱至 火行其政 民病胸中煩熱 噎乾 右肱滿 皮膚痛 寒熱咳嗽 大雨且至 唾血泄 飩衄 嘔嘔 溺色變 甚則瘡瘍**腑**腫 肩背臂臑及缺盆中痛 心痛 肺膜腹大滿 膨膨而喘咳 病本于肺 尺澤絕 死不治

太陰司天 濕淫所勝 則沉陰且布 雨變枯槁 **腑**腫骨痛 陰痺 陰痺者 按之不得 腰脊頭項痛 時眩 大便難 陰氣不用 飢不欲食 咳唾則有血 心如懸 病本于腎 太谿絕 死不治

少陽司天 火淫所勝 則溫氣流行 金政不平 民病頭痛 發熱惡寒而瘧 熱上皮膚痛 色變黃赤 傳而爲水 身面**腑**腫 腹滿仰息 泄注赤白瘡瘍 咳唾血 煩心 胸中熱 甚則飩衄 而本于肺 天府絕 死不治

……太陰之勝 火氣內鬱 瘡瘍於中 流散於外 病在肱脇 甚則心痛 熱格 頭痛 喉痺 項強 獨勝則濕氣內鬱 寒迫下焦 痛留項 互引眉間 胃滿 雨數至 燥化乃見 少腹滿 腰腫重強 內不便 善泄注 足下溫 頭重 足脛**腑**腫 飲發於中 **腑**腫於上……

……少陽之復 大熱將至 枯燥燔蒸 介蟲乃耗 驚癰咳衄 心熱煩燥 便數憎風 厥氣上行 面如浮埃 目乃瞶癰 火氣內發 上爲口糜 嘔逆 血溢 血泄 發而爲瘡 惡寒鼓慄 寒極反熱 噎絡焦槁 渴飲水漿 色變黃赤 少氣脈萎 化而爲水 傳爲**腑**腫 甚則入肺 咳而血泄 尺澤絕 死不治……

……少陰司天 客勝則飩 嘔 頸項強 肩背脊熱 頭痛 少氣 發熱 耳聾 目暝 甚則**腑**腫 血溢 瘡瘍 咳嗽 主勝則心熱煩躁 甚則脇痛 支滿 太陰司天 客勝則首面**腑**腫 呼吸氣喘 主勝則胸腹滿 食已而瞖……少陰在泉 客勝則腰痛 尻股 膝 脾 膈 肱 足病 脊熱以酸 **腑**腫不能久立 溲便變 主勝則厥氣上行 心痛 發熱 鬲中 衆痹皆作 發於肱脇 魄汗不藏 四逆而起……

……諸病**腑**腫 疼酸驚駭 皆屬於火 ……<sup>36)</sup>

## 【考察】

‘腑’에 대하여 王冰<sup>37)</sup>은 傳爲腑腫에 대해서는 腑를 皮肉으로 풀이하였으나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浮腫으로 해석하였으며, 吳昆, 張介賓<sup>38)</sup>, 『白話解』<sup>39)40)41)42)43)</sup>에서도 모두 ‘浮腫’으로 설명하였다.

36)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95, pp.296-304.

37) 氣蒸熱化 則爲水病 傳爲腑腫 腑謂皮肉俱腫 按之陷下 泥而不起也 如是之證 皆火氣所生也. 王冰 編註, 新編黃帝內經素問, 서울, 大星文化社, 1994, p.580.

38) 化而爲水 傳爲腑腫 以氣蒸熱化 水道不通 而浮腫如泥也. 張介賓, 張氏類經, 서울, 成輔社, 1982, p.967.

39) 嚴重的還會發生瘡瘍 浮腫 肩背 上肢及缺盆部位疼痛 心痛 肺脹 腹大膨滿 喘息 咳嗽等 太陰司天的年份 濕土之氣淫勝 制約水氣 故陰沉之氣充滿天空 雨水過多 致使草木枯萎 人們易患浮腫 骨痛 寒濕之邪阻滯經脈引起的陰痺等病證 如果進一步發展就會成爲水病 頭面及全身浮腫 腹脹滿 仰而喘息 泄瀉如注 赤白痢疾 瘡瘍 咳血 唾血 心煩 胸中熱 王洪圖 主編, 黃帝內經靈樞白話解,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04, pp.574-575.

40) 人們易發生少腹滿 腰椎沉重強直 腹中不適 經常泄瀉如注 足下溫 頭沉重 足脛浮腫 水飲發于內而浮腫起于上等病證. 王洪圖 主編, 黃帝內經靈樞白話解,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04, p.580.

41) 氣血兩虛 水飲停留 傳變爲浮腫 嚴重的邪氣侵入肺臟 發生咳嗽 血泄等病證. 王洪圖 主編, 黃帝內經靈樞白話解, 北京,

33)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95, pp.265-276.

34) 腑腫 浮腫, 吳昆, 黃帝內經素問吳注, 北京, 學苑出版社, 2007, p.325.

35) 它引起的疾病是 身體沉重 浮腫 水飲 痞滿等. 王洪圖 主編, 黃帝內經素問白話解,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04, p.507.

王氷<sup>44)</sup>이 皮肉으로 풀이한 부분 또한 반드시 皮肉이어야 할 까닭이 없으므로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浮腫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胛’는 ‘浮腫’을 意味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2-3. 발효시킨 음식의 의미

#### 1) 異法方宜論 第十二

【原文】

南方者 天地所長養 陽之所盛處也 其地下水土弱 霧露之所聚也 其民嗜酸而食胛 故其民皆緻理而赤色 其病攣痺 其治宜微鍼 故九鍼者 亦從南方來<sup>45)</sup>

【考察】

‘胛’에 대하여 王氷<sup>46)</sup>은 향기롭지 않은 것이라 하였으며, 馬蒔<sup>47)</sup>, 張介賓<sup>48)</sup>, 『白話解』<sup>49)</sup>에서는 ‘썩은 음식’으로 설명하였다. 『黃帝內經辭典』<sup>50)</sup>과 『內經辭典』<sup>51)</sup>에서도 모두 ‘썩히다’는 의미로 설명하였는데 유독 『黃帝內經大辭典』<sup>52)</sup>에서는 ‘蚌’라 하여

벌레로 설명하였으니 타당성이 없다. 여러 주석가들이 풀이한 썩힌 음식이라는 의미는 곧 발효시키거나 썩혀서 냄새가 나는 음식을 말하는 것이지 말 그대로 腐敗를 의미하는 썩은 음식을 뜻하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胛’는 앞뒤 내용과 연관시켜 볼 때 ‘삭히거나 발효시킨 음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2-4. 부패의 의미

#### 1) 風論 第四十二

【原文】

癘者 有榮氣熱胛 其氣不清 故使其鼻柱壞而色敗 皮膚瘍潰 風寒客於脈而不去 名曰癘風 或名曰寒熱<sup>53)</sup>

【考察】

‘胛’에 대하여 王氷<sup>54)</sup>, 馬蒔<sup>55)</sup>, 張介賓<sup>56)</sup>, 『白話解』<sup>57)</sup>에서는 썩는다, 腐敗하여 문드러진다고 풀이하였다. 즉 氣血이 탁해서 썩어 문드러진다는 의미이니, 여기에서 ‘胛’는 ‘腐敗’를 意味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2) 陰陽類論 第七十九

【原文】

二陽三陰 至陰皆在 陰不過陽 陽氣不能止陰 陰陽並絕 浮爲血瘕 沈爲臌脹<sup>58)</sup>

【考察】

古籍出版社. 2008. p.645.

53)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95. p.157.

54) 與榮氣合 合熱而血胛壞也. 王氷 編註. 新編黃帝內經素問. 서울. 大星文化社. 1994. p.262.

55) 今風氣感之 則榮氣熱腐. 馬蒔. 黃帝內經素問注證發微.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8. p.277.

56) 久留不去 則榮氣化熱 皮膚胛潰. 張介賓. 張氏類經. 서울. 成輔社. 1982. p.466.

57) 嚴重的會使營氣發生腐敗 造成氣血汚濁不清 而出現鼻柱毀壞而氣色敗壞. 王洪圖 主編. 黃帝內經靈樞白話解.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04. pp.275-276.

58)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95. pp.318-319.

人民衛生出版社. 2004. p.584.

42) 視物不清 嚴重的會出現浮腫 血溢 瘡瘍 咳嗽 喘息等病證 悶熱酸痛 浮腫不能衛立 大小便顏色改變等病證. 王洪圖 主編. 黃帝內經靈樞白話解.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04. pp.590-591.

43) 諸多浮腫 疼痛酸楚 驚恐的病證 大多如火氣有關. 王洪圖 主編. 黃帝內經靈樞白話解.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04. pp.325-328.

44) 氣蒸熱化 則爲水病 傳爲胛腫 胛謂皮肉俱腫 按之陷下 泥而不起也 如是之證 皆火氣所生也. 王氷 編註. 新編黃帝內經素問. 서울. 大星文化社. 1994. p.580.

45)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95. p.44.

46) 言其所食不芬香. 王氷 編註. 新編黃帝內經素問. 서울. 大星文化社. 1994. p.93.

47) 胛者 氣之腐者也. 馬蒔. 黃帝內經素問注證發微.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8. p.104.

48) 胛 腐也 物之腐者 如岐鮓麵醬之屬是也. 張介賓. 張氏類經. 서울. 成輔社. 1982. p.340.

49) 人們喜食酸味及發酵之品. 王洪圖 主編. 黃帝內經靈樞白話解.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04. pp.85-86.

50) 郭霽春 主編. 黃帝內經辭典. 天津. 天津科學技術出版社. 1991. p.630.

51) 張登本, 武長春 主編. 內經辭典.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5. p.435.

52) 周海平, 申洪硯, 朱孝軒 主編. 黃帝內經大辭典. 北京. 中醫

‘跗’에 대하여 『白話解』<sup>59)</sup>에서 ‘潰爛’으로 설명하였다. 즉 여기에서 ‘跗’는 ‘腐’字와 같은 맥락으로 ‘씩어 문드러지다’는 뜻으로 ‘腐敗’를意味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2-5. 부착의 의미

### 1) 刺癰論 第三十六

【原文】

脛痠痛甚 按之不可 名曰跗髓病 以鏡針 針絕骨出血 立已<sup>60)</sup>

【考察】

‘跗’에 대하여 張志聰<sup>61)</sup>은 足面이라 하였으며, 馬蒔<sup>62)</sup>, 張介賓<sup>63)</sup>, 高世祜<sup>64)</sup>, 『白話解』<sup>65)</sup> 등에서는 깊이 잠복해 있다거나 병이 뼈에 있다는 의미로 풀이하여 ‘跗髓病’을 ‘골수에 붙어 있는 병’으로 보았다.

足面이라 해석하면 의미가 분명하지 않고 附着이라 해석하면 골수에 붙어있는 병 또는 골수와 같이 깊이 숨어있는 병이라는 의미가 된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跗’는 ‘附着’을意味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으며, 발효시킨 음식, 발등, 부패, 부착 등을 의미하는 경우의 용례를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評熱病論』의 경우 사전류나 주석가들은 주로 ‘跗’字를 ‘발등’을 의미하는 ‘跗’字로 설명하였으나 전후 문맥으로 보아 ‘浮腫’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마땅할 것이다. 『水熱穴論』의 경우는 역대 주석가들은 대부분 ‘皮膚’나 ‘肌膚’를 뜻하는 것으로 ‘跗’字를 설명하였으나 전후 문맥으로 보아 『水熱穴論』의 경우도 ‘浮腫’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마땅할 것이다.

따라서 『黃帝內經』에 사용된 ‘跗’字의 의미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① ‘跗’의 뜻으로 足背를意味
  - ② ‘浮’의 뜻으로 浮腫을意味
  - ③ ‘腐’의 뜻으로 삭히거나 발효시킨 음식을意味
  - ④ ‘腐’의 뜻으로 腐敗를意味
  - ⑤ ‘附’의 뜻으로 附着을意味
- 이와 같이 다섯 가지 경우이다.

이와 같이 『黃帝內經』에 사용된 ‘跗’字는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므로 문맥에 따라 그 의미를 잘 구별하여 해석해야 한다.

## III. 考察 및 結論

사전류에서는 ‘跗’字에 발효한 음식, 발등, 피부, 浮腫 등의 의미가 있다고 하였는데, 『黃帝內經』의 실제 용례에서는 浮腫을 의미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

## 參考文獻

1.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95. p.123, 213, 246. pp.265-276, 296-304.
2.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95. p.44, 136, 157. pp.318-317.
3. 王洪圖 主編. 黃帝內經素問白話解.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04. p.256, 288, 450, 507. pp.275-276, 482-483, 631-632.
4. 王洪圖 主編. 黃帝內經靈樞白話解.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04. p.250, 580, 584. pp.85-86, 325-328, 574-575.
5.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漢韓大辭典. 서울.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2007.
6. 郭霽春 主編. 黃帝內經辭典. 天津. 天津科學技術出版社. 1991. p.630.

59) 陽氣會浮就會形成膿腫潰爛. 王洪圖 主編. 黃帝內經靈樞白話解.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04. pp.631-632.

60)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95. p.136.

61) 此風邪深入於骨髓中者 宜刺足少陽之絕骨穴 蓋少陽之氣主骨也 足骨 足面也 風邪入傷骨髓 故痛不可按 張志聰. 張志聰醫學全書, 黃帝內經素問集注.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150.

62) 脛痠痛甚不可按者 按之益痛也. 馬蒔. 黃帝內經素問注證發微.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8. p.250.

63) 其邪深伏 故名曰跗髓病. 張介賓. 張氏類經. 서울. 成輔社. 1982. p.525.

64) 髓藏于骨 故名曰跗髓病. 高士宗. 黃帝內經素問直解. 北京. 學苑出版社. 2002. p.253.

65) 如果病人小腿部位酸痛劇烈 甚至不能觸按 這種病叫做跗髓病. 王洪圖 主編. 黃帝內經靈樞白話解.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04. p.250.

7. 周海平, 申洪硯, 朱孝軒 主編. 黃帝內經大辭典.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2008. p.645.
8. 張登本, 武長春 主編. 內經辭典. 北京. 人民衛生出版社.1995. p.435.
9. 王冰. 新編黃帝內經素問. 서울. 大星文化社. 1994. p.93, 219, 262, 452, 580. pp.495-496.
10. 張介賓. 張氏類經. 서울. 成輔社. 1982. p.340, 466, 475, 525, 730, 852, 967.
11. 馬蒔. 黃帝內經素問注證發微.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8. p.104, 229, 277, 280, 377.
12. 楊上善. 黃帝內經太素. 北京. 科學技術文獻出版社. 2000. p.915. pp.290-291.
13. 高士宗. 黃帝內經素問直解. 北京. 學苑出版社. 2002. p.229, 253, 395.
14. 吳昆. 黃帝內經素問吳注. 北京. 學苑出版社. 2007. p.154. pp.246-247, 310-311.
15. 張志聰. 張志聰醫學全書, 黃帝內經素問集注.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136, 150, 283.
16. 엄동명. 『素問』 「腹中論」 '石之則狂'에 대한 새로운 해석. 세명대학교 한의학연구소. 한의학연구소 논문집 3. 2001.
17. 엄동명 외 3인. 胞에 관한 考察.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2011. 24(4).
18. 심현아 외 3인. 『黃帝內經』中"死"字意味研究.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2012. 25(3).